

전주 한옥마을과 전주비행박물관

전주를 여행하는 일은 즐겁다. 눈에 즐거운 볼거리를 다양하게 갖췄을 뿐만 아니라 입이 즐거운 맛난 먹거리, 귀에 듣기 좋은 전통공연까지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의 향기를 느끼려면 옛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한옥마을을 먼저 방문할 일이다. 수백 년을 살아온 한옥마을에서 전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고루 느낄 수 있다.

글 · 사진 : 김숙현



전주 경기전

옛 향기 그윽한 한옥마을

전주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한옥마을은 참으로 독특한 장소다. 옛 향기가 물씬 풍기면서도 그 안에서 현대를 느낄 수 있다. 우리 옛 멋이 현대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전주 한옥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옥 밀집 지역이 아닐까 싶다. 서울의 남산 한옥마을처럼 속이 비어있는 전시용 공간이 아니라 아직까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마을이다. 수십 년 된 것에서부터 수백 년 된 것까지 다양하다. 일반 주택 사이사이에는 한옥을 개조해 전통술박물관, 한옥 생활체험관, 공예품 전시관 등으로 꾸며 놓아 여행자들의 발길을 잡아 붙든다.

한옥마을은 구조가 간단하고 또 지도에 잘 표시되어 있어 안내지도 한 장만 가지고 걸어다니거나, 지전거를 이용해 둘러보기에 좋다. 먼저 한옥마을 안에 문을 연 전통술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술 가양주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곳이다. 집집마다 나름의 비법으로 빚어 마시던 술을 가양주라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명절이나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 직접 술을 빚곤 했다. 전통적인 술 빚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곳으로 술 만드는 도구와 과정을 지켜볼 수 있으며 발효실에서 한창 맛이 익어 가는 술 향기도 맡을 수 있다.

박물관에서는 매달 전통 술 빚는 방법에 따라 술을 담고, 시음회도 갖는다. 술을 담그는 것은 매달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3시. 시음회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5시에 갖는다. 누룩향이 물씬 풍기는 우리 가양주를 어떻게 빚는가, 또 맛은 어떠한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한옥마을 곳곳에서 민속놀이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곳, 전통공예품을 현대 감각으로 제작해 전시·판매하는 곳, 전통찻집이나 식당 등이 있어 마을만 둘러보는데 서너 시간이 금새 흐른다.

경기전과 전통성당

한옥마을 입구에 자리한 경기전은 고색 창연한 옛 건물과 안팎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어 문화유적을 감상하기도 하고, 동시에 숲에서 쉬어갈 수 있어 좋다. 조선을 건설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이 봉안된 곳으로 태종 10년에 창건했다. 경기전의 어진(왕의 영정)은 난리를 피해 여러 차례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으나 지금은 경기전 안에서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경기전을 비롯한 전주 시내 주요 유적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문화해설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경기전 입구에 있는 전주시 관광안내소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신청할 수 있고, 전주 관련한 다양한 여행자료를 모두 구할 수 있다.

경기전 맞은편의 전통성당은 1914년에 지은 서양식 건물로

▼ 비빔밥 만들기 체험



오랜 역사가 느껴진다. 성당 내부는 단아한 멋이 풍기는데 영화 '악삭'에서 두 주인공이 결혼을 올리던 장면의 배경으로 쓰이기도 했다. 경기전에서 나오면서 한번쯤 둘러볼 만한 곳이다.

온 몸으로 체험하는 전주

전주하면 비빔밥이 떠오를 정도로 전주 비빔밥은 유명하다.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주 비빔밥을 맛볼 수 있지만 전주에서 먹는 맛과는 어딘지 모르게 차이가 난다. 전주에서 직접 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여행이라면 한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한옥마을의 동쪽 끄트머리에 자리한 전통문화센터는 전통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장과 전통예술큐를 배울 수 있는 곳, 전통식당, 전통찻집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조리체험실도 있는데 이곳에서 비빔밥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

저녁 시간에는 전통공연을 감상해 보자. 전통문화센터에서 거의 매일 저녁 공연이 있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을 매일 공연하는 곳은 서울에서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 예약의 도시 전주에서 이런 공연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물놀이, 춤, 민요, 판소리 등 공연 내용은 수시로 바뀐다.

한옥에서 하룻밤 머물며 우리 전통 가옥의 멋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한옥마을 안에 한옥생활체험관과 양사재 두 곳이 있다. 한옥생활체험관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규모가 꽤 큰 편인데 안채, 사랑채, 행랑채, 마당, 사랑마당 등을 갖춘 전통 한옥이다. 방은 장작으로 군불을 지피는 전형적인 온돌방이다. 양사재 역시 한옥에서 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곳이다. 원래 전주향교의 부속건물로 향교에서 공부를 마친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묵으며 생원, 진사 공부를 하던 일종의 기숙사였다고. 77

▼ 전통문화센터의 공연



실용정보

☞ 교통

호남고속도로 전주내들목으로 나가서 호남제일문을 통과하면 곧장 전주 시내에 이른다. 추천대교를 건너 직진하면 기린로로 이어지는데 리베라호텔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한옥마을이다. 전주관광안내소(경기전) ☎ 063-232-6293, 전통문화센터 ☎ 063-280-7000

☞ 맛집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비빔밥은 노랗게 반짝이는 늦그릇에 색깔 고운 나물들이 푸짐하게 담겨 나온다. 늦그릇은 온기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고, 미각적으로 입맛이 당기는 효과가 있다. 고슬하면서도 부드러운 밥과 계절에 맞게 준비한 나물, 칼칼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고추장이 잘 어우러진다. 도청 근처에 있는 성미당 ☎ 063-284-6595, 가족회관 ☎ 063-284-0982, 한국관 ☎ 063-272-9229 등이 유명하다.



☞ 숙소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전주한옥생활체험관 ☎ 063-287-6300과 양사재 ☎ 063-282-4959. 두 곳 모두 2인 기준으로 50,000원부터(아침식사 포함). 한옥체험은 객실이 한정된 데 비해 찾는 이가 많아 예약이 일찍 마감된다. 그 외에 전주 시내에 많은 호텔, 여관 등이 많으므로 어렵지 않게 숙소를 구할 수 있다.